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물류 시장 및 국제물류사업 동향 중 국내기업들이 해외진출과 신규사업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회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 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및 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 |
|--|---|
| □ 케냐 몸바사항, 제2컨테이너 터미널 공사 및 현대화 작업 지연 우려----- | 2 |
| □ 중국, 장강 수심 증심사업 및 난징항 확장사업 추진----- | 3 |
| □ 인도, 스리랑카 북부항만프로젝트에 재정지원 약속----- | 4 |
| □ 아르헨티나, Ibicuy항만 인프라에 3천만달러 투자 계획----- | 5 |
| [공 지]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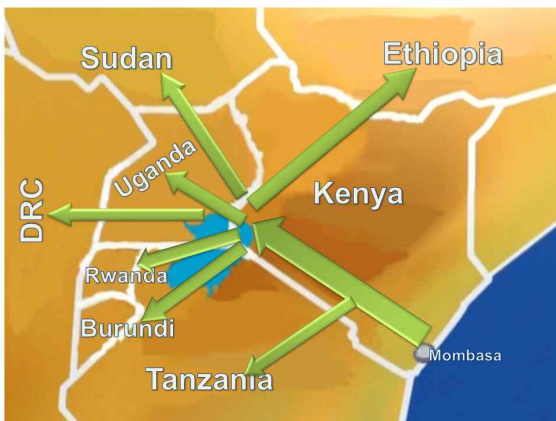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책임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박철원 연구원(02-2105-2982, ironwon@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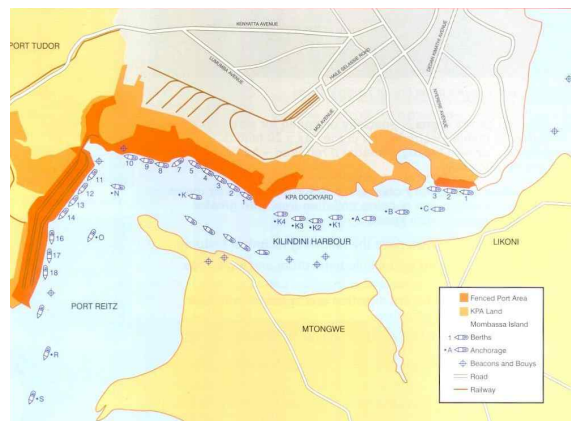
□ 케냐 몸바사항, 제2컨테이너 터미널 공사 및 현대화 작업 지연 우려

- 케냐 몸바사(Mombasa)항의 제2컨테이너 터미널 공사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과도한 로비로 인하여 연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케냐 몸바사항은 2009년 62만 TEU, 2010년 70만 TEU 등을 처리하였으나 적정하역능력은 25만 TEU에 불과하여 시설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 이에 케냐 항만청(Kenya Ports Authority; KPA)은 제2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및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본 JICA에서 전체 사업비의 약 70%에 달하는 1억 8,500만 달러를 지원받기로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올해 3월 시행된 입찰 공고에 일본의 3개기업(Toa Corporation, Toyo Construction, Penta Ocean)이 응하였으며, KPA는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내에 착공하여 2013년에 제2컨테이너 터미널을 개장하는 등 몸바사항의 하역능력을 100만 TEU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중국의 신화통신에 따르면 입찰 과정에서 과도한 로비로 인해 입찰 절차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짐
- 더욱이 일본의 자금지원은 몸바사항의 민영화와 연관되어 있으나, 항만노조(Dock Workers Union)에서 민영화를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민영화로 인해 KPA 인력의 3/4에 해당하는 7,000명 정도가 불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몸바사항의 민영화는 2013년 전까지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몸바사항 위치 및 영향권>



<몸바사항 현황>



자료 : news.xinhuanet.com, 2011.05.04. / www.cargosystems.net, 2011.05.10. /
www.ratio-magazine.com, 2011.0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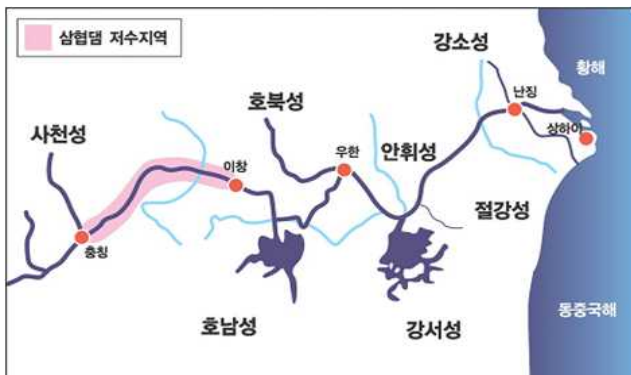
송주미 책임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중국, 장강 수심 증심 및 난징항 확장사업 추진

- 중국정부는 '12.5'계획 기간 동안 장강 물류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강 입구에서 장강 물류 중심지인 난징항까지 장강 수심을 12.5m로 증심하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임
 -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5일, 중국정부는 교통운수부 장관 리청린과 장수성 성장 리쉬예용을 팀장으로 하는 '난징 심수항로 건설사업지도팀'을 구성
 - 장강 지역에 대한 항만건설, 수심 증설 등의 인프라 개발, 선박표준화, 운항 효율성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 이를 통해 대량 운송이 가능한 해운중심으로 장강물류체계를 재편하여 지역발전계획인 서부대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장강의 수심 증심사업은 5만톤급 외항선이 24시간 난징항에 기항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장강 수심을 12.5m로 확장 추진하는 것으로,
 - 해상사고 방지를 위해 장강 전 노선을 대상으로 전자수로지도시스템(ECS)과 자동식별시스템(AIS) 설치 추진
 - 이를 통해 처리물동량 확대, 해상 사고 방지, 24시간 통행, 연간 200만톤의 연료 절감, 600만톤의 탄소배출량 감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한편 장강지역 최대 환적항인 난징항은 늘어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12.5'계획 기간 동안 54.4억위안을 투자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을 확장할 계획임
 - 룡탄지역에 3.7km의 컨테이너 선석 15개를 건설할 예정이며, 이 중 바지선 및 근해 운항 선박 화물 처리를 위한 1만톤급 선석 13개를 신규로 개발할 예정임
 - 2010년 처리 물동량은 140만 TEU에 불과하나 신규 터미널 건설을 통해 2015년 300만 TEU, 2020년 최소 400만TEU에서 최대 600만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장강 및 주요 물류거점>



<난징 룡탄터미널 조감도>



자료: <http://www.chinaports.org>, 2011.0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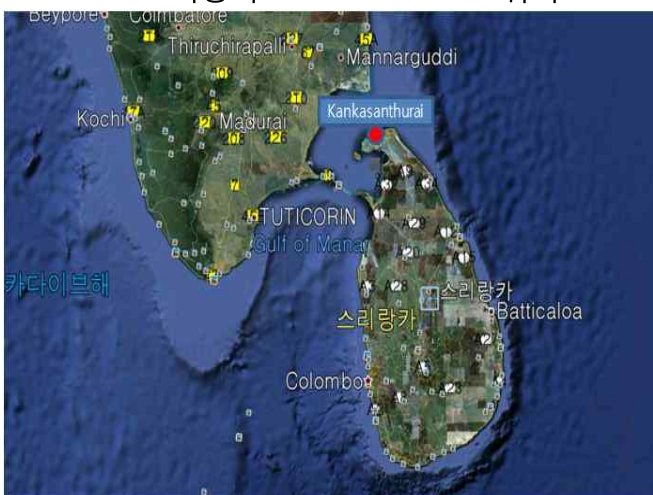
이주호 책임연구원(☎ 02-2105-2890, jooho@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인도, 스리랑카 북부항만프로젝트에 재정지원 약속

- 인도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에 스리랑카 북부 Jaffna반도 Kankasanthurai(이하KKS)항만 개발에 대한 인도정부의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MOU가 체결됨
 - KKS항만은 스리랑카 10대 항만중 하나로 북부지역 최대항만이며 지리적으로는 인도와 근접하여 개발시 인도와의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으리라고 전망
- 그동안 KKS항만개발은 스리랑카의 주요 SOC개발 프로젝트로 간주되어 왔으나, 북부지역 정부군과 LTTE(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반군과의 20여년간에 걸친 내전으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스리랑카 대통령 Mahinda Rajapaksa의 제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함
 - 이 프로젝트를 통해 스리랑카정부는 북부지역 경제의 부흥뿐만 아니라 인도와의 인적·물적 교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이번 MOU체결의 또 다른 의미는 스리랑카 북부 및 동부지방의 내전으로 파괴된 인프라시설의 재건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2단계로 이뤄지며 기존방파제 및 부두 보수와 신규 방파제 건설, 부속 시설 및 항해지원 설비 제공, 준설 등을 포함
 - 공사는 수개월내에 먼저 항만내부의 많은 난파선을 제거한 후 준설공사를 시작함으로 본격 공사를 개시 할 것이라고 함
 - 한편 스리랑카 외무부장관은 이번 프로젝트관련 세부보고서 및 지질조사를 RITES 컨설팅사를 통해 진행시킬 계획이며 인도정부는 이 조사에 7천만 루피를 부담할 예정임

<스리랑카 Kankasanthurai 위치>



<Jaffna반도 Kankasanthurai항만 위치>



자료: www.porttechnology.org, 2011.05.12. / www.colombopage.com, 2011.05.11.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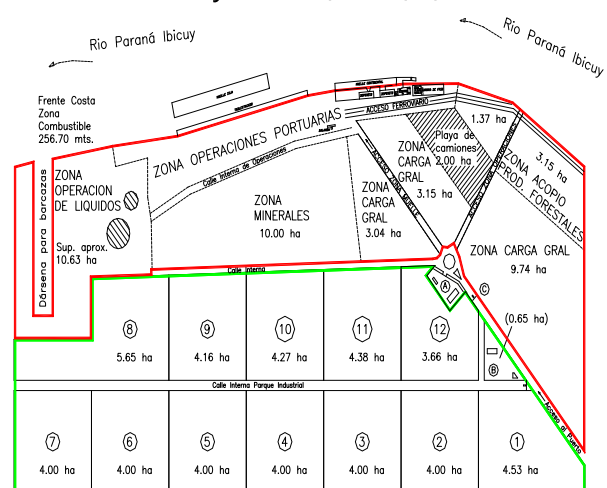
□ 아르헨티나, Ibicuy항만 인프라에 3천만달러 투자 계획

- 아르헨티나 민간기업인 Transporte Ibicuy S.A(TISA)는 Entre Rios주 Ibicuy항만에 3천만달러를 투자하여 신규 인프라 공사를 시행 할 것을 결정
 - 2011년 1/4분기중 Ibicuy항의 화물처리량은 이미 전년도 전체 처리물량을 넘어섰고 이러한 물량집중이 신규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TISA 대표는 밝힘
 - 현재 Ibicuy항은 월 180척의 바지선과 70만톤의 철광석을 처리하고 있고 이 공사로 월 300척의 바지선과 연 200만톤의 철광석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함
 - 이번 공사로 내륙국가인 볼리비아는 연간 2백만톤 이상의 곡물 및 광물(철광석)을 대서양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함
- 개발규모는 총 107ha로 이중 54ha(우측그림 초록색부분)는 산업지구로 나머지 53ha(우측그림 붉은색부분)는 철도 및 항만터미널로 이용될 계획임
 - 철도 및 항만 터미널은 도로시설, 철도시설, 트럭주차장 2ha, 바지선부두 300m, 목재부두 3.15ha, 일반화물 및 벌크화물부두 15.93ha, 액체화물부두 10.63ha, 광물 환적부두 10ha로 구성
 - 산업지구는 평균 4.5ha 크기의 12개의 구역으로 중앙관리소, 변전소,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등으로 구성
- Ibicuy항만은 아르헨티나 Entre Rios주에 위치, 수도 BuenoAires에서 북서쪽으로 180Km 떨어져 있으며 1947년 목재부두로 조성되어 현재는 곡물, 목재, 광물(주로 철광 및 석탄)을 주로 처리하고 있는 노후화된 항만임

<Buenos Aires, Ibicuy위치>



<Ibicuy 프로젝트 계획도>



자료: www.mundomaritimo.cl, 2011.05.13. / www.puertoibicuy.com, 2011.05.13.

박철원 연구원(☎ 02-2105-2982, ironwon@kmi.re.kr)



[공 지]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 조사 목적

- 국토해양부는 해운·물류 관련 유망사업 발굴 및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지원하기 위한 글로벌물류네트워크(GLN)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진출 사업 발굴과정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조사 기간

- 2011. 4.25. ~ 5.31.

□ 신청 대상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국제물류투자펀드 운용사, 은행,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 신청 대상 사업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 투자·운영권 확보와 관련된 사업
-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건설·운영
- 해운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 운영사 등)의 인수·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 법인 설립

□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김현성/전태영, 02-2110-6372, 8558)

※ 세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첨부파일(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